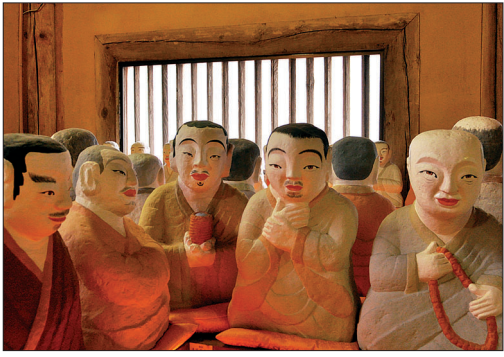


그 절집의 빛

④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오백나한상

오백나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깊은 사유, 사념에 젖은 듯하고 눈빛이 살아있다.



표정과 시선, 자세가 천태만상이다.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이 결집한 526체의 부처님 상수제자들.

지눌스님 정혜결사를 펼친 도량 나한(羅漢)은 범어 아라한(arhan)의 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이다.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하여 일체의 번뇌를 끊고 수행자들의 최고 계위인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은 성자를 이른다. 공양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응공(應供)으로도 부르고, 진리에 따르므로 응진(應眞), 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으로도 부른다. 불제자들은 경전에 따라 여러 숫자의 집합단위로 등장한다. <유마경>에서는 십대제자, 현장스님이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대라소설법주기>에서는 십육나한, <증일아함경>, <오분율> 등에서는 오백나한으로 나온다.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 등은 부처님 사후 칠정굴에 모여 아난존자가 경을, 우배리존자가 율을 암송하여 경과 율을 결집한 '차결집'의 역사적 인물들이다. 동시에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수기품' 등에서 광명여래(가섭), 명상여래(수보리), 전단향여래(목건련), 화광여래(사리불), 범명여래(부루나), 보명여래(교진여 비구와 500아라한) 등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점차 부처로 수기(授記)를 받으신 경전상의 성자들이다. 미특하생 때까지 이 땅에 머물며 불법을 전하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역할을 부촉 받았다.

거조사에 유서깊은 인문의 향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영산전, 해인사 장경판전 님은 고려건축 거조암의 핵심불전은 영산전이다. 영산전의 외양은 한눈에 보기에도 흔치않은 구조다. 현존하는 고려건축에서 보이는 법식이 눈에 띈다. 벽체의 살창이라든지 단순한 중심포식 건물에서 오래된 연륜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 해체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목서명에 의해 1375년에 지은 고려시대 건물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영산전은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가로로 확장해나간 장대함이 특히 인상적이다. 가로 30m, 세로 10m의 수평성이 강하고, 또 벽체의 투박한 나무 살창구조에 단청을 전혀 입하지 않은 가시없는 백골단청의 불연이다. 여러 면에서 해인사 장경관전을 연상케 한다. 내부전경 역시 서까래 목재 그대를 노출해서 자연 그대로의 선적인 아름다움과 뼈대의 힘을 보여준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처럼 건축 전체에 간결하고 소박한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흐른다.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갖춘 절제된 내면이 엿보인다.

10대제자, 16나한, 오백나한 등 526체 영산전, 나무와 흙벽 그대로인 백골단청 고려오백나한도 14점과 순번, 존명 일치 생로병사 애환 뱀 천태만상의 나한 표정

페인트를 벗겨내고 대신 파스텔톤의 일본안료로 채색해서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갖춘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나한의 머리색은 흰색,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점은 그 정확한 재질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제작하였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 일체의 제작정황을 모르는 까닭에 더욱 신비감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켜서 나한기도도량의 영험을 미묘하게 지속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거조암은 3월만 정성껏 기도하면 영험을 본다는 입소문이 자자해서 나한기도도량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의례적이다. 석가모니불의 십대제자와 십육나한, 오백나한을 차례로 봉창하고 모든 이름을 밝혀두고 있다. 이 의식집에서 밝힌 나한존자의 순번과 이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중인 7점의 나한도를 포함해서 현존하는 고려 오백나한도 14점의 화제 목서에서 밝히고 있는 순번과 존명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놀랍다. 그것은 하나의 범례의 모형을 갖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대단히 실증적인 문헌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526체의 나한은 의상스님의 210자 화엄일승법계도처럼 법계도의 흐름으로 봉안하여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인 일승불의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을 일깨우고 있다. 정문에 따른 나한의 봉창 차례를 살펴보면 후불벽 뒷벽 끝자락에서부터 '십대제자' 제1 가섭존자, 제2 사리불존자, ... 제10 부루나존자로 이어지고, '십육나한'은 제1 빈도로존자, 제2 가락존자, ... 제16 주다반타가존자의 순서로 정하고 있으며, '오백나한'에 와서는 제1 범해존자, 제2 전광존자 순으로 봉창해서 제500 무량존자로 매듭 짓는다. 법계의 흐름은 순환과 대칭의 커다란 나선형 구조다.

발우마다에 사랑 한 알씩 올리고 합장의 예를 올리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미있다. 때로는 쌀 한줌씩, 꽃 한 송이씩 옥법공양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감동적인 대목은 그 회향에 있다. 공양물로 발우에 오른 사랑과 쌀은 주변의 군부대,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등에 회향해서 이웃의 삶에 되돌려진다. 만민에게 회향하는 대목이 인상 깊다. 거조사 영산전에 526체의 나한들이 결집해 계신다. 어떤 분은 즐겁고, 어떤 분은 심각하며, 어떤 분은 깊은 사유에 젖었다. 마치 인생의 모든 표정과 감정을 결집해 놓은 것 같다.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만나는 인생도처의 얼굴들, 인생도처의 표정들이다. 낯설지 않은 친근한 이웃들을 만난다. 저마다의 표정에는 생로병사의 애환과 깊은 탄식, 놀라움, 기쁨, 슬픔이 숨겨져 드러나고 눈빛이 살아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다. 아라한에 앞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인연의 방편이 일러진다.

사람의 아들이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과의 최고계위에 올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 수기 받으신 분들, 헤아려볼수록 감동적이고 위대한 두터행의 길이다. 지눌스님의 정혜결사문의 한 구절이 훈습처럼 뱀다. '수심지와 무별행문(修心之外 無別行門)' 마음을 닦는 것 외에는 따로 수행하는 문이 없다. 그 절집의 빛은 만고청산 지눌스님의 빛이고, 영산전 오백나한의 빛임을 알겠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청문 의례 따른 오백나한 차례와 존명 거조암 오백나한의 불가사의한 특징은 모든 나한의 존명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즉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운부암의 영파스님이 18세기말에 허물어진 거조사를 다시 세우면서 1805년에 한 분 한 분의 존명을 밝혔다고 전한다. 오백나한상의 존명과 차례번호는 영파스님이 무학대사의 의례집을 참조하여 편찬한 <오백성중정문(五百聖衆請文)> 의식집에 따른 것이다. <오백성중정문>은 은해사 박물관에 보관중인 40여쪽의

사랑, 동진, 쌀 등의 만발공양 사람들은 그 법계의 나선형을 따라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린다. 나한 앞에는 점지와 발우가 놓여 있다. 500개가 넘는 발우라서 오백나한에 올리는 공양을 '만발공양'이라 부른다. 미황사 괘불재에 만인이 올리는 만물공양만큼이나 공양장면이 재미있고 가슴뭉클하다. 한 분에게 100원동전 하나씩만 올려도 6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정이고 보니 사랑 한 알씩 올리는 장면이 연출 된다.

은해사 거조암(居祖庵)은 그 아라한들의 세계다. 거조암은 '조(祖)'가 머무르는 절, 거조사였다. 그런데 거조사의 '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팔공산의 아미타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여래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법을 전하고 정법안장하는 선종의 조사(祖師) 느낌이 강하다. 아라한의 이미지가 선종의 조사에 겹친다. 거조사의 이름과 오백나한상이 인과의 선후로 연관되어 보인다. 특히 보조국사 지눌께서 거조암에 7년간 머물면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천명한 역사적 사실을 떠올려보면 고승 조사와의 인연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거조사는 보조국사 지눌과의 인연으로 인해 한국불교사에 중요한 사공간으로 평가된다. 1190년 늦봄에 지눌은 이곳 거조사에서 "땅에 넘어진 사람, 땅을 짓고 일어선다"로 시작하는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했다. 한마음을 몰라서 끝없는 번뇌 속에 있는 이가 중생이고, 한마음을 깨달아서 환없는 지혜를 드러낸 이가 부처이니 마음을 떠나서는 불교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 지눌은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로 고요함과 깨어있음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가는, 정혜쌍수(定慧雙修)에 힘을 것을 권했다. 한국불교사의 파사현정의 큰 획의 자취가

www.buddhabook.co.kr

불교서적
신행용품
명상음반

붓다북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통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구입처 붓다북 02) 953-7181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응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별>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